

정부 세종청사에서의 어느 하루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2023년 7월18일 낮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글쎄요…”

2023년 7월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에 모인 기자들과 대변인실 관계자들은 12시간 넘게 같은 질문과 답변을 반복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둘러싼 대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023년엔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모았다. 2023년에 9620원이던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돼서다. 그도 그럴 것이 380원(전년 대비 3.95%)만 올려

도 1만원대 진입이 가능한 상태였다.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높은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1만원대 진입’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최근 5년간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를 기록했다.

그래서인지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전날부터 고용부 기자실엔 평소보다 많은 기자가 자리했다. 세종에 적잖은 비가 내렸지만 많은 기자가 찾아왔다. 이 탓에 기자실 내부 온도가 상승해 불쾌지수도 함께 올라갔다. 설상가상



2023년 7월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으로 내 자리 인근에 위치한 에어컨까지 고장나 연신 부채질을 해댔다. 얼마후 더는 참지 못하고 에어컨이 제 기능을 하는 같은 층의 고용부 브리핑실로 자리를 옮겨 취재를 이어갔다.

최저임금 현안 취재는 2023년 처음이었다. 앞서 여기저기 문의해 보니 제14차 전원회의에서는 결론이 날 듯했다. “자정 쯤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18일 아침 2024년 최저임금 관련 발제를 내면서도 부장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6월29일이던 법정 심의 기한은 한참 넘겼지만,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날은 결론을 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서다. 기사 작성 방식과 함께 회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라는 부장 지시가 내려졌다.

같은 날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청사 4층에 마련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14번째 전원회의가 시작됐다. 현장을 공개하는 모두발언 취재를 마친 뒤 ‘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협상 돌입…이르면 오늘 결정’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해 CMS에 올려두고 회의 결과를 기다렸다.

두 시간이 지난 오후 5시쯤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의 2024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6차 수정안과 같은 10620원을 내놔지만 경영계가 전보다 10원 많은 9795원을 제시하며 양측 요구안 격차가 825원으로 좁혀졌다. 그해 5월2일 제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12210원을, 경영계(사용자위원)가 9620원 동결안을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관련



2023년 7월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이 2024년 최저임금 1만원 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속보와 기사를 쓰고 고용부 청사 구내식당을 찾았다.

저녁 8시40분께 8차 수정 요구안이 나왔다. 노동계 10580원, 경영계 9805원으로 이견차가 더 좁혀졌다. 밤 10시30분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내놔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안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논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들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은 2022년 최저임금보다 2.1% 오른 9820원을 하한으로, 5.5% 인상된 10150원을 상한으로 제시했다. 하한은 올해 1~4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임금 상승률(2.1%)을, 상한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물

가 상승률 전망 평균치(3.4%)와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2.1%)을 고려해 산출했다는 설명을 달았다.

‘그래, 예상대로 오늘은 넘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기사 작성을 이어갔다. 브리핑실에 모인 기자들은 최저임금이 얼마나 결정될지를 점쳐보는 내기 아닌 내기를 하기도 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결론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회의실 앞에서 대기를 해도 마찬가지였다. 회의 시작 15시간이 지난 이날 자정쯤 제15차 회의로 차수를 변경해 전원회의를 이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론이 자정을 넘겼다’는 보고를 하고,

